

정답 및 해설

【제1회】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①	④	②	①	④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①	②	③	③	③	①	①

01. [출제 포인트 - 음운 변동]

- ① 집비둘기[집뻘둘기]는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에 속한다.
 ④ 만누이[만누이]-자음동화, ② 굳히다[구치다]-구개음화, ③ 잡히다[자 피다]-자음축약 등은 모두 ㉠에 속한다.

02. [출제 포인트 - 단어 형성법]

- ① 선머슴, ② 애호박, ③ 홀이불 등은 접두 파생어이고 ④ '갈림길'은 '갈리(다)+口+길'의 결합으로 합성어이다. '갈림길'의 경우, '口'이 명사화 접미사로, '갈리(다)+口'이 먼저 파생어가 된 연후에 '길'과 최종결합을 했으므로 합성어이다. 이것을 파생어의 합성이라고 한다.

03. [출제 포인트 - 한글맞춤법]

- ② '피+대'는 '우리말+우리말'이다. 초(醋)+국, 회(蛔③)+배
 ③ '두레+일'은 '우리말+우리말'이다.
 '가외(加外)+일', '사사(私事)+일
 ④ 갯수는 '개수'로 고친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것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컷밥 나룻배 나룻가지 냇가 댕가지
 뒷갈망 댕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뱃가리 부싯돌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우렁이숙 잇자국 찻더미 조갯살 찻집 찻바퀴
 킷값 킷대 햃벌 햃바늘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텃머리 잇몸
 갯목 냇물 빗물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갯열 뒷웃 두랫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웃잇 갯잇 나뭇잎 댕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컷병 머릿방 뱃병 붓독 사갯밥 셋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좃국
 콧병 땃줄 텃세 핏기 헛수 핏가루
 햃배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제삿날 햃날 텃마루 양칫물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04. [출제 포인트 - 외래어 표기법]

- ④가 바른 표기이다. 'ㅈ, ㅊ' 뒤에는 반드시 단모음이 와야 한다.

- ① 커피숍(o) : 받침에는 일곱 개 자음만 쓴다.
 ② 초콜릿(o)
 ③ 콤팩트디스크(o)

05. [출제 포인트 - 어법에 맞는 문장 찾기]

- ②번이 올바른 문장이다.

- ① 피로회복에는 역시 ○○○!

→ 원기 회복에는 역시 ○○○!

- ③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 '흡연을 삼가 주십시오.'로 고쳐야 옳다. 또는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가 바르다. '삼가하다'는 '삼가다'에 '하'를 잘못 덧붙여 쓰는 말이다. '삼가다'는 '삼가(<-삼가+--아), 삼가니(<-삼가+--니), 삼가서(<-삼가+--서), 삼갑시다(<-삼가+--하나다)'와 같이 쓰이는 말로 '하다'를 덧붙여 쓸 필요가 없는 말이다.

- ④ 너는 팔뚝이 두꺼워서 민소매 옷이 안 어울려.

→ 너는 팔뚝이 굵어서 민소매 옷이 안 어울려.

06. [출제 포인트 - 어법에 맞는 문장]

- ①이 정답이다. ①번 문장에서 '담배를 태우다'는 맞는 말이다. '담배를 피우다'와 '담배를 태우다'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태우다'는 '타게 하다'를 뜻하고, '피우다'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의 뜻입니다. '담배를 태우다'는 '담배를 피우다'처럼 쓸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담배에 불을 붙여 타게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 ② 외국어 번역투이다.

- ③ 먹다 남은 쓰레기는 꼭 가지고 차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 '먹다 남은 음식은 ~'

- ④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 이 문장은 '때문이다'보다는 '덕분이다', 또는 '덕택이다'가 훨씬 자연스럽다. 우리말 '때문'은 어떤 말 뒤에 붙여 그 사실이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나 까닭이 됨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긍정적인 문장이나 부정적인 문장이나 두루 쓰이지만 'ㄷ'의 경우 때문(?)인지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등 에서 보듯 사람 뒤에 쓰이면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긍정적 인 문장에는 '때문'보다는 '덕분' 또는 '덕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때문'은 이유나 원인을 뜻하는 반면 '덕분'이나 '덕택'은 '도움'이나 '은혜'를 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07. [출제 포인트 - 단어의 쓰임]

- ④ 상황을 고려할 때 '곤란한 상황'과 관련되므로 '곤혹'이 적절하다.

- ① '불게 하다'의 의미가 아닌 것은 모두 '부치다'를 써야 한 다. 이 예문은 '말리다, 부족하다'이므로 '부치다'가 맞다.

- ② '단치다'는 '단다'의 강세 표현으로 '일부러 힘주어 단다'의 뜻이고, '단히다'는 '단다'의 피동 표현이다.

- ③ '받히다'는 '받다'의 피동 표현으로 '받음을 당하다'의 의미 이다.

- ④ 곤혹(困惑) :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 처해 함, 찼찼함
 곤욕(困辱) :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

08. [출제 포인트 - 올바른 문장]

- ① 있으시겠습니다.

- ② 건강하게 지내세요.

- ③ 소개해

09. [출제 포인트 - 로마자 표기]

- ①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왕십리[왕심니] wangsinni
- ②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③ ‘-’는 ‘ㅣ’로 발음되더라도 ‘ui’로 적는다.
- ④ 행정구역 단위는 ‘-’ 뒤에 표기하며, 행정구역 단위가 붙기 전의 음운 변화는 인정하고, 붙어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10. [출제 포인트 - 단어 다듬기]

- ② 같음 : 바꾸어 대신하다 / 가름 : 따로따로 갈라놓다

11. [출제 포인트 - 외래어 표기법]

- ② 표기와 발음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표음을 ‘ㄷ’이 아닌 ‘ㅅ’으로 한다.

12. [출제 포인트 - 고전문법]

- ③ 한자는 중국 글자이므로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중국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이다. 따라서 한자음의 표기가 현대의 한자 발음을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 ① 연결[이어적기] 표기가 사용
- ② 어두자음군이 사용
- ④ 8종성가죽음법 사용 - 7종성법은 17C 이후 사용

13. [출제 포인트 - 표준발음]

- ‘ㄹ’ : 대표음은 ‘ㄱ’, 첫소리가 ‘ㄱ’인 어미 앞에서는 ‘ㄹ’로 발음
예) 맑다[막파], 맑고[말꼬]
- ‘ㄷ’ : 대표음은 ‘ㄹ’, 다음 ‘ㅍ’은 무조건 ‘ㅍ’으로 발음
예) 넓다[널파], 넓다[밥:파]
- ‘ㅍ’ : 대표음 ‘ㄹ’
예) 활다[할파]

14. [출제 포인트 - 맞춤법]

(1) ‘이’로 적는 경우

- ① 부사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계속 부사로 쓰일 때 :
일찍이, 더욱이, 곱곰이
- ② 명사가 중복된 단어에 접미사가 결합될 때 :
일일이, 틈틈이
- ③ ‘-하다’가 결합될 수 없고, ‘ㅂ’불규칙 용언일 때 :
외로 이, 고이, 괴로이
- ④ ‘-하다’가 결합될 수 있어도 ‘ㅅ’받침 뒤에서 :
깨끗이, 반듯이, 느긋이, 지긋이
- ⑤ ‘이’로만 발음될 때 :
깊숙이, 나직이, 높직이, 끔찍이, 고즈넉이

(2) ‘히’로 적는 경우

- ‘-하다’가 결합될 수 있거나, ‘히’로만 발음되는 단어
예) 조용히, 당당히, 도저히, 급급히, 속히, 작히

15. [출제 포인트 - 언어의 특성]

- ② 언어의 내용인 실제 의미와 형식인 음성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 한다.

16. [출제 포인트 - 언어규범]

- ① 쿡트, 머리기사, ② 커트, ④ 만들

17. [출제 포인트 - 문장의 짜임새]

- ①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
→ 명사절로 안긴문장
- ②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 관형절로 안긴 문장
- ③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④ 돌이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 인용절로 안긴문장

18. [출제 포인트 - 언어규범]

- (가)냄비, (마)우레/천둥 등이 규정에 맞다.

19. [출제 포인트 - 관용적 표현의 이해]

- ①은 사전적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 ②~④는 관용적 표현이 쓰였다.
- ②귀가 얇다 :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
- ③발이 넓다 :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 ④눈이 밝다 : 길을 잘 찾다

참고 <관용적 표현>

□ 귀 밖으로 듣다
1. 남의 말을 성의 있게 듣지 않고 듣는 등 마는 등 하다. → 내 말을 귀 밖으로 듣지 마라.
2. 듣고도 못 들은 척하다. → 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밖으로 듣고 자기 일만 했다.
□ 귀 베고 꼬리 베고
이것저것 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적은 돈에서 귀 베고 꼬리 베고 나니 남는 게 없다.
□ 귀(가) 따갑다
1. 소리가 날카롭고 커서 듣기에 괴롭다. 2.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 귀(가) 아프다.
□ 귀(가) 여리다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다. → 그 사람은 귀가 여려서 남이 하는 말을 잘 믿는다.
□ 귀(가) 질기다
1. 둔하여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예) 워낙 귀가 질긴 친구라 알아듣지 못할 거다.
2. 말을 씩씩하게 잘 듣지 않고 끈덕지다. 예) 이렇게 고집만 피우다니 생각보다 귀가 질기군!
□ 귀(를) 뜨다
동물이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알아듣게 되다. → 아이가 귀를 뜨다.
□ 귀(를) 주다
1. 남의 말을 엿듣다. → 책을 보는 체하면서 두 사람 말에 귀를 주었다.
2. 남에게 살그머니 알려 조심하게 하다. → 이미 누군가가 그에게 귀를 주었다.
□ 귀(에) 거칠다
하는 말이 온당치 않아 듣기에 거북하다. → 귀에 거친 말을 자꾸 한다.
□ 귀가 뚫리다
말을 알아듣게 되다. → 미국에서 산 지 1년 만에야 귀가 뚫렸다.
□ 귀가 번쩍 뜨이다
들리는 말에 선뜻 마음이 끌리다. → 아버지는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말에 두 귀가 번쩍 뜨였다.
□ 귀가 열리다
세상 물정을 알게 되다.

□귀를 세우다

듣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다.

□귀를 씻다

세속의 더러운 이야기를 들은 귀를 씻는다는 뜻으로, 세상의 명리를 떠나 깨끗하게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아무도 없는 첩첩산중에 파묻혀 귀를 씻고자 하노라.

□귀를 열다

들을 준비를 하다.

→ 다시 말해 줄 테니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 보셔.

□귀를 재다

= 귀(를) 기울이다. [예]그의 말에 귀를 쫓다.

□귀를 재우다

말썽을 무마하여 평온하게 만들다.

→ 자네가 귀를 재워 주어야겠네.

□귀를 팔다

귀를 딴 데로 돌리어 잘 듣지 않다.

→ 어디다 귀를 팔고 있기에 그런 소리도 못 듣냐?

□귀에 딱지가 앉다

= 귀에 못이 박히다. 귀에 썩이 나다

→ 며칠 동안 귀에 딱지가 앉도록 되풀이해 온 이야기를 익삼 씨가 다시 길게 늘어놓으려 하자...

참고 <속담>

[㉠] 귀 막고 방울 도둑질한다[도적질하기]

얕은 수를 써서 남을 속이려 하나 거기에 속는 사람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귀 소문 말고 눈 소문 하라[내라]

실지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즉 귀장사 하지 말고 눈 장사 하라.

[㉢] 귀가 도자전 마룻구멍이라

= 귀가 보배라[도자전이라/산훗가지라].

귀가 보배라[도자전이라/산훗가지라]

배우지 않았으나 얻어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즉 귀가 도자전 마룻구멍이라 · 꺾구멍이 도자전 마룻구멍이다.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1」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떤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출제 포인트 - 고유어의 의미]

①은 '길의 가장자리'를 뜻한다.

정답 및 해설

【제2회】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③	③	③	①	④	③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①	③	①	④	④	④	①

01. [출제 포인트 - 높임법]

<보기>는 주체 높임의 예이다.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께서’와 선어말 어미‘-(으)시-’에 의해 실현된다. 그리고 ‘계신다, 주무신다, 돌아가시다, 편찮으시다’ 등 특정 동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또,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간접 높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선어말 어미‘-(으)시-’의 사용은 동사나 형용사 나에 따라 제한적이지는 않다. ‘ㄷ’은 형용사인‘타당하다’에 선어말 어미‘-(으)시-’가 결합된 형태이다.

02. [출제 포인트 - 단어 다듬기]

‘정돈’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 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함’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④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이라는 의미로서 ‘채무 정리’, ‘재개발 지역의 택지 정리’등과 같이 ‘정리’라는 말이 적절하다.

03. [출제 포인트 - 언어 예절]

①은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를 때 쓰이는 말로, 영식(令息), 영랑(令郎)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04. [출제 포인트 - 표준 발음의 이해]

- ① 문법[문법](O)
- ② 넓죽하다[넙쭈카다](O)
- ④ 샅일[상닐](O)

05. [출제 포인트 - 조사]

- ㉮는 서로 같은 가치를 띠었음을 나타내주는 보조사이다.
- ① 부사격 조사는 문장 안에서 체언이 부사어임을 나타내고,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고, ‘나는 배와 사과를 샀다.’에서 ‘와’는 접속 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조사는 대개 체언 뒤에 오지만, 용언이나 부사에 결합되기도 한다. 그런데 ‘예쁘게’가 형용사에 해당하므로, ㉮는 조사가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06. [출제 포인트 - 언어의 기능(문법적 지식)]

2002년 개정판 ‘문법’ 교과서에서는 ①을 ‘지식,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 말한다.
지식·정보의 보존 기능이란 주로 논리적이고 지적인 것을 상징화하는 과정을 거쳐 지식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기능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지식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언어의 기능이다.

07. [출제 포인트 - 문장의 짜임새]

- 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 부사절로 안긴 문장
- ②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명사절로 안긴 문장
- ③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이 시작되었다.
→ 관형절로 안긴 문장
- ④ 열심히 했는데도 학점이 잘 안 나온다.
→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

08. [출제 포인트 - 어법에 맞는 문장]

- ① 여자 - 미모, 남자 - 용모
- ② 백인과 흑인은~, 동양인은 피부색으로 나눈 기준이 아님.
- ④ 그것은 대화에 임하는 선수의 정신 자세가 문제이다.

09. [출제 포인트 - 문맥적 의미(어휘 능력)]

‘장마가 지다’에서 ‘지다’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나타나다의 뜻이다.

10. [출제 포인트 - 한글 맞춤법]

- ① 웬일이니? - ‘무슨 일이니?’의 뜻으로 관용적으로 붙여 쓴다.
- ② 열둘째 - 차례를 나타내는 서수사의 경우 ‘열두째, 스물두째’,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의 경우 ‘열둘째, 스물둘째’로 표기한다.
예) 열두째 사람, 사과를 열둘째 먹었다.
- ③ 오르려라 - ‘오르리다’의 명령형

11. [출제 포인트 - 추론(논리적 오류)]

- ②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 사고력을 기르려면 글을 써야 한다.

↓
우리는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글을 써야 한다.

- ① 앞의 ‘값이 싸다’는 ‘저렴하다’는 의미이나, 뒤의 ‘값이 싼것’은 ‘싸구려’라는 의미인 까닭에 두 어구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한 ‘은밀한 제정의의 오류’
- ③ 분할의 오류
- ④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12. [출제 포인트 - 국어의 로마자 표기(규범적 지식)]

- ① 성주 - Seongju
- ② 법문[법문] - beommun
- ④ 백마[백마] - Baengma

13. [출제 포인트 - 띄어쓰기]

- ①, ②는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3항)는 규정에 적용시켜야 한다.
②는 바르게 띄어 썼고 ①은 제1과로 붙여 써야 한다. ③은 ‘~걸 상 등이(제45항)’, ④는 ‘~을 듯하다(제47항)’

14. [출제 포인트 - 국어 순화어]

- ①은 일본식 한자어로 ‘갯길’로 순화해야 한다. ‘나들목’은 ‘인터체인지’의 순화어이다.

15. [출제 포인트 - 규범적 지식 해설]

백분율: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물’은 ‘열, 율’로 적는다.
각두기: ‘ㄱ, ㅁ’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수캐: ‘개, 닭, 당나귀, 돼지’등의 가축일 경우 접두사 ‘수~’다음 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방귀쟁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 를 표준어 로 삼는다.

위층: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16. [출제 포인트 - 어근과 접두사의 구분]

①은 ‘굽다’의 뜻이 있는 어근이고, ②③④는 접사이다.

17. [출제 포인트 - 어휘의 의미]

<보기>의 ‘에누리’는 오늘날 그 의미가 이동되고 있는 어휘 중 하나이다. 즉, 원래의 의미는 ‘물건 값보다 더 부르는 것’을 의미하나 ‘물건 값보다 값을 깎는 것’으로도 사용되어 한 단어에 상반된 의미가 있게 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주책’이다. 주책은 원래 ‘주장이나 판단력이 있음’을 뜻하나 이와 상반된 ‘짓대가 없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책’도 한 단어에 상반된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8. [출제 포인트 - 형태소]

‘맑’과 ‘흐르’는 용언의 어간이다. 이 말들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형태소이다.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사용되므로 홀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의존형태소이다.

② <개>의 형태소는 ‘어제, 는, 비, 가, 많, 이, 내리, 었, 다’로 전부 9개가 맞다.

19. [출제 포인트 - 문법 기능-의문문]

ㄱ, ㄴ은 설명의문문 ㄷ, ㄹ은 판정 의문문 ㄴ, ㄹ은 수사의문문이다.

20. [출제 포인트 - 단어의 형성]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언어에 투영된 것의 예로 ‘어제 오늘’은 적절하나, ‘밤낮’과 ‘엿그제’는 적절하지 않다. ‘밤낮’은 시간의 선후 관계라 할 수 없고 ‘엿그제’는 이를 전을 가리키는 말일 뿐이다.

정답 및 해설

【제3회】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①	④	④	③	②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②	②	①	③	④	④	③

01. [출제 포인트 - 단어의 형성]

- ① 합성어 : (열다+닫다)
- ② 파생어 : 드(접두사+높다)
- ③ 파생어 : 낮+추(사동 접미사+다)
- ④ 파생어 : 휘(접두사+감다)

02. [출제 포인트 - 높임법]

(㉠)에서는 주체인 '철수'가 객체인 '그분'을 높여 '모신다'고 했다. (㉡)에서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자 '-시-'라는 높임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였고, '칭자'를 높이고자 '-습니다'라고 표현하였다. (㉢)의 경우는, 주체인 '현주'가 객체인 '그'를 높이고 있지는 않다. 단, 문장 자체가 '칭자'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로 마무리되었다.

03. [출제 포인트 - 접사의 이해]

- ①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 가운데 품사를 바꾸는 것은 접미사이다.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다음의 예를 통해 보면 된다.

- 군-: 군말, 군불, 군살, 군소리, 군식구 --접두사
- 새-/시-: 새빨갳다/시뻘겟다, 새파랗다/시퍼렇다--②
- 헛-: 헛고생, 헛걸음, 헛소리, 헛디디다, 헛돌다--③④
- -(으)ㅁ: 가르침, 걸음, 도움, 모임, 믿음 --접미사:품사를 바꿈

04. [출제 포인트 - 관용어]

- ④는 발목뼈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발'이 실제로 빠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다. 반면 나머지 답지들은 관용적 표현으로 본래의 의미가 아닌 특정한 관습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① 사고의 범위가 넓다.
- ② 여기저기 흔하게 널려 있다.
- ③ 적극적으로 나선다.

05. [출제 포인트 - 속담]

'까마귀가 메밀을 마다한다'는 말은 평소 좋아하던 것을 의외로 사양할 때, 이를 빈정대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버티는 사람에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광에서 인심난다
→ 자신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쌀독에서 인심난다.
- ②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앓는다.
→ 친구를 사귀거나 직업을 택하는 데에도 신중하게 잘 가려서 택해야 한다는 말
- ③ 자는 법 코침 준다
→ 그대로 가만히 두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을 공언히 건드려 문제를 일으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6. [출제 포인트 - 문장의 짜임새]

-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ㄷ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고, 며, 지만, (으)나, 든지'는 대등적 연결어미이다.

07. [출제 포인트 - 활용]

올바르다'는 '올발라', '올발라서' 등과 같이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다. 이와 같이 어간의 끝 음절 '르'가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와 어울려 '으'는 탈락하고, 어미가 '-라(러)'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 '르'불규칙 활용이다. ① '따르다'는 '따라', '따라서'등과 같이 '으'만 탈락하는 규칙 활용 용언이다. ③ '갈다'는 '가니', '가네'등과 같이 'ㄴ'만 탈락하는 규칙 활용 용언이다. ④ '다다르다'는 '다다라', '다다라서'등과 같이 '으'만 탈락하는 규칙 활용 용언이다.

08. [출제 포인트 - 품사의 구분]

'ㄴ'을 보면, 부사의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앞의 문장은 '이사 간 집이 새 집'이라는 의미이고, 뒤의 문장은 '그가 완전히 이사를 간 곳'이라는 의미이다.

- ① 'ㄴ'에서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 ② 'ㄴ'은 '빠르다'라는 형용사에 부사와 접미사가 붙어서 된 부사이다.
- ③ 말하는 이의 마음먹기, 즉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로 문장 전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09. [출제 포인트 - 퇴고]

'한창'은 '가장 성하고 활기가 있을 때'를 의미하며, '한참'은 '시간이 꽤 지나는 동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맥상 '한창'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출제 포인트 - 품사의 구분]

- ②은 수사이고 ①③④는 명사이다.

① 하나	1. 수사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 예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사과 두 개 중 하나만 먹어라.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2. 명사 ①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 예 뜻을 하나로 모으다
	② 여러 가지로 구분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 예 칸트는 자유를 두 종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요, 하나는 적극적 자유다.
	③ (주로 '하나만' 꼴로 쓰여)'오직 그것뿐'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나에게서 하나뿐인 그대/자식 하나만 믿고 살아온 어머니.
	④ (주로 '하나도' 꼴로 쓰여 뒤에 오는 '없다', '없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전혀', '조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④ 하나도 즐겁지 않다 ⑤ ('하나의' 꼴로 쓰여)'일종의'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아빠에 대한 얘기는 누구의 입에서도 꺼내기 겁나는 하나의 터부처럼 돼 있었던 것이다.

11. [출제 포인트 - 맞춤법]

- ② '-하'가 붙는 말이 줄 때에 '-하' 앞의 말이 안을 림소리로 끝나는 경우 '-하'가 통째로 생략되므로 '넉넉하지 않은'은 '넉넉지 않은' 또는 '-하지 않은' '-참'으로 줄게 되므로 '넉넉참은'으로 준다.

12. [출제 포인트 - 맞춤법]

- ④ '옴키다'에서 온 말이므로 '옴큼'이 옳다. '옴큼'(×)이라 써서는 안 된다.

- ① ‘금시(今時)’가 줄어든 말로 ‘지금 바로’의 뜻
 ※ ‘금새’는 ‘물건의 시세나 값’을 의미한다.
 ② → 어이없다.
 ③ → 염두(念頭)에 두고

13. [출제 포인트 - 복수표준어]

‘살고기’는 ‘살코기’로 표기한다(한글맞춤법 제31항 2-ㅎ 덧생기는 체언의 잔존).

14. [출제 포인트 - 표준어의 이해]

- ② 강낭콩→강낭콩, 사흘날→사흘날(한글맞춤법 제29항), 꺾꽂이→꺾꽂이(한글맞춤법 제27항)

15. [출제 포인트 - 표준발음]

- ② 밭다-[밭:따]가 바른 발음이다. ‘밭-’은 자음 앞에서 [밭:]으로 발음한다(표준발음법 제10항 ‘다만’의 규정)

16. [출제 포인트 - 국어의 로마자 표기]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6항). 따라서 Gyeongbokgung으로 표기해야 한다.

17. [출제 포인트 - 외래어 표기법]

- ③ 리포트(report)의 표기가 바르다. 조사나 연구, 실험 따위의 결과에 관한 글이나 문서, 학생이 교수에게 제출하는 소논문(小論文)을 리포트(report)라고 한다. ‘보고서’로 순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① 엘레베이터(elevator) → ‘엘리베이터’
 ② 액세서리(accessory) → ‘액세서리’
 ④ 로보트(robot) → ‘로봇’

18. [출제 포인트 - 띄어쓰기]

- ④가 바르게 띄어 쓴 정답이다. ‘만’이 의존명사로 쓰일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 이 경우 (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을 뜻한다.
 (예) 십 년 만의 귀국 /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 / 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 /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① 마을 사람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 몰라서 두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 ‘옳은지’로 붙여 써야 한다.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뜻할 경우 ‘(는)지’는 어미이므로 띄어 쓰면 안 된다. ‘(는) 지’처럼 띄어 쓸 경우는 시간성 의존명사로 쓰일 경우다.
 ②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 ‘사흘 만에’로 띄어 써야 한다. 이 경우 ‘만’은 경과한 시간을 의미하는 의존명사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만에’의 경우 경과한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 이미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졌으므로 붙여 쓴다는 사실도 알아 두자.
 ③ 그냥 모르는 척 살만도 한데 말이야. → ‘살 만도’로 띄어 쓴다. 이때 ‘만’은 의존명사이다.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나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경우 의존명사로 앞 말과 띄어 쓴다.

19. [출제 포인트 - 어법에 맞는 문장]

- ④ 인류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형상을 만들어 내려고 한 그의 연구논문은 대중과 언론의 혹평을 받기도하였다. → ‘와/과’로 연결된 문장 구조가 자연스러운 바른 문장이다.
 ① 지금 인류는 핵전쟁의 위협 이외에도 환경오염과 같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 지금 인류에게는 핵전쟁의 위협 이외에도 환경오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다.
 ‘인류는 ~ 문제가 많이 있다.’에서 주술 관계가 어색하다. ‘인류에게는

~ 문제가 많이 있다.’로 고친다. ‘환경오염과 같이’에서 ‘같이’는 부사어인데 ‘문제가’를 수식하는 것이 어색하다. ‘환경오염과 같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처럼 바꾸면 자연스럽다.

- ② 여성 혼육서인 내훈의대상은 궁중의 옥엽과 내빈 그리고 민간의 부녀자를 위한 것이었다. → ㉠ 여성 혼육서인 내훈의 대상은 궁중의 옥엽과 내빈, 그리고 민간의 부녀자였다.

이 문장은 주술 관계가 잘못된 문장이다.

- ③ 타당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자기전공분야에 대한 광범위한독서와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타당한 문제제기를 하려면, 자기전공분야에 대한 글을 광범위 하게 읽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20. [출제 포인트 - 품사의 통용]

- ③ 두 문장에서 ‘바로’가 모두 부사로 쓰이고 있으므로 <보기>의 밑줄 친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각각 대명사, 관형사로 쓰이고 있다.
 ② 각각 수사, 관형사로 쓰이고 있다.
 ④ 각각 부사, 명사로 쓰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新 유형문제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01. 정답 ③ [단어의 분류 파악]

[정답해설]

ㄴ. '붓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불입금, 이자, 갯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라는 의미이고, 뒤의 단어는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라는 의미이다. 두 단어의 의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들어갈 수 있다. ㄷ. '갈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뒤의 단어는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단어의 품사는 동사이면서, 각각 '갈고, 갈며, 갈지' 등으로 동일하게 규칙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B]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오답해설]

ㄱ. '뜨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행동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를 의미하고, 뒤의 '뜨다'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로 솟아오르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인 반면, 뒤의 단어는 품사가 동사이다.
ㄷ. '묻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뒤의 단어는 '무엇을 밝혀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단어의 품사는 모두 동사에 속하지만, 활용을 할 때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앞의 '묻다'는 '묻고, 묻으며, 묻으니'로 규칙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뒤의 '묻다'는 '묻고, 물으며, 물으니'로 활용의 형태가 바뀐다.

02. 정답 ④

[정답해설]

④ (가)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경우이고, (나)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이다. ⇒ (가)는 규칙 용언이고, (나)는 불규칙 용언이다. (가)에는 후행하는 어미가 무엇이든지 언제나 어간을 하나로 고정해서 적고 있다. 즉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에서는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의 표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이다.

[오답해설]

① (가)는 본말을 줄여서 적은 경우이고, (나)는 본말을 그대로 적은 경우이다. ⇒ (가)와 (나)는 모두 그 자체가 본말일 뿐, 다른 형태를 줄인 경우가 아니다.
② (가)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이고, (나)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경우이다. ⇒ (가)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고 볼 수 없다. (나)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는 연음을 반영하여 적은 경우이고, (나)는 연음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경우이다. ⇒ (가)와 (나) 모두 연음되는 대로 적지 않고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었다.

03.. 정답 ③ [불규칙 활용의 사례 파악]

[정답해설]

'일컫다'는 '일컫고, 일컫지, 일컬어, 일컬어서' 등으로 활용하므로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깨닫다'는 '깨달으니, 깨달아서' 등과 같이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② '눅다'는 '누워, 누으니' 등과 같이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④ '파랗다'는 '파래, 파래서' 등과 같이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04. 정답 ④ [한글 맞춤법의 원리 파악]

[정답해설]

④ ㄱ, ㄴ은 모두 ㉔를 반영한 것이다. →

ㄱ은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끝의 'ㄹ'이 발음되지 않으면 'ㄹ'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소리대로 적는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㉔를 반영한다.

ㄴ역시 'ㄹ'이 'ㄷ'으로 발음 나면 'ㄷ'으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㉔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한글 맞춤법의 하위 조항 중 ㉔(어법에 맞도록 함)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구개음화를 표기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 제6항,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고 한 제14항, 제15항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해설]

① ㄱ은 ㉔를 반영한 것이고, ㄴ은 ㉔를 반영한 것이다.

→ ㄴ은 ㉔가 아닌 ㉔를 반영한 것이다.

② ㄱ은 ㉔를 반영한 것이고, ㄴ은 ㉔를 반영한 것이다.

→ ㄱ은 ㉔가 아닌 ㉔를 반영한 것이다.

③ ㄱ은 ㉔를 반영한 것이지만, ㄴ은 ㉔, ㉔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는다.

→ ㄴ은 ㉔를 반영하고 있다.

05. 정답 ③

[정답해설]

㉔는 복합어를 이루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지만, ㉔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

[오답해설]

① ㉔과 ㉔ 모두 소리는 같고 표기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하나는 표준어이고 다른 하나는 방언이라고 볼 수 없다.

② ㉔과 ㉔은 소리는 같고 표기만 다르므로 본말과 준말의 관계라고 볼 수 없다.

④ ㉔과 ㉔ 모두 음운의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06. 정답 ④ [단어의 형성 추론]

[정답해설]

'싸움쟁이'는 동사 어간 '싸우-'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더해져 '싸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쟁이'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답해설]

① '잠귀'는 동사 어간 '자-'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더해져 '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명사인 '귀'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② '욕심꾸러기'는 명사 '욕심'에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꾸러기'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③ '물음표'는 동사 어간 '묻-'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더해져 '물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표지'를 나타내는 명사 '표(標)'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07. 정답 ④ [파생 접사와 어미의 구분]

[정답해설]

'먹이'의 '-이'는 동사를 명사로, '높이'의 '-이'는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먹고'의 '-고'와 '높고'의 '-고'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단지 활용형을 만들 뿐이다.

[오답해설]

① '먹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어 주고, '높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품사를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꾸어 주지만, 어미는 품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지 못한다.

② 어미들은 그 의미가 일정하지만 파생 접미사들은 결합되는 어근에 따라 그 의미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높게, 깊게, 짧게, 작게'에서 어미 '-게'는 그 의미가 모두 같지만, '털갈이, 재떨이, 구두닦

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그 의미가 각각 다 다르다. '털갈이'의 '-이'는 '~하는 일'의 의미를 나타내고, '채털이'의 '-이'는 '~하는 도구'를 나타내며, '구두담이'의 '-이'는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 ③ '높게, 깊게, 짧게, 작게'와 '높이, 깊이, *짧이, *작이'에서 나타나듯이 어미는 그 어간과의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파생 접미사는 그 결합이 제약되어 있다.

08. 정답 ③ [두음 법칙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ㄷ)에서 단체 이름의 본말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지만 준말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해설]

- ① (ㄱ)에서 볼 수 있듯이 의존명사는 그 앞에 항상 다른 말이 와야 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ㄴ)에서 볼 수 있듯이 '여행, 역학'은 합성어의 후행 요소로 쓰여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④ (ㄹ)의 '한국여자대학교'나 '서울여관'은 둘 이상의 명사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인 '여자'와 '여관'과 같이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09. 정답 ③ [한글 맞춤법 규정의 적용]

[정답해설]

'싸이어', '보이어', '누이어', '뜨이어'는 '싸-+-이-+-어', '보-+-이-+-어', '누-+-이-+-어', '뜨-+-이-+-어'로 분석할 수 있다. 원리 도출에 비추어 볼 때, '췌어, 싸여'(ㄱ), '뵈어, 보여'(ㄴ), '뉘어, 누여'(ㄷ), '띄어'(ㄹ)로 줄여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ㄹ. '띄어'를 [떠어] 또는 [떠여]로 발음하지만, '떠여'와 같이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떠어쓰기, 띄어 쓰다, 띄어 놓다'의 경우에는 관용상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

10. 정답 ② [어문 규범의 구체적 적용]

[정답해설]

<보기>는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불필요하게 '으'를 덧붙여서 생기는 오류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되물은'의 '되물-'은 '되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바뀐 것으로,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답해설]

- ① '날으는'의 '날-'은 'ㄹ'로 끝나는 어간이며, '-는' 앞에 '으'가 덧붙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③ '부풀은'의 '부풀-'은 'ㄹ'로 끝나는 어간이며, '-ㄴ' 앞에 '으'가 덧붙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④ '울으니까'의 '울-'은 'ㄹ'로 끝나는 어간이며, '-니까' 앞에 '으'가 덧붙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11. 정답 ① [표준어 규정의 적용]

[오답해설]

'윗도리, 위채, 윗자리, 윗번'은 '아랫도리, 아래채, 아랫자리, 아랫번'이 존재하므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 마찬가지로 '윗길, 위층, 윗집, 윗배'도 모두 '아랫길, 아래층, 아랫집, 아랫배'가 존재하므로 '윗-'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12. 정답 ④ [올바른 표기 추론]

[정답해설]

ㄱ: '그것'은 하나의 합성어라서 붙여 쓰고 '내 것'은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존 명사를 띄어 써야 한다.

ㄴ: '날씨 때문에'를 붙여 쓴 것이 틀렸는데 그 이유는 의존 명사 '때문'을 붙여 썼기 때문이다.

ㄷ: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라서 붙여 쓰고 '떡을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라서 띄어 쓴다.

따라서 ㄱ, ㄴ, ㄷ에 대한 답변 내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④이다.

13. 정답 ②

[정답해설]

- ② ㉠: 작년엔 준희는 애인에게 채었다. ⇒ '차여졌다'는 '차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형 '차이다'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차였다'로 고쳐 써야 한다. '채이다'는 피동형 '차이다'의 준말 '채다'에 '-이-'를 한 번 더 붙여 쓴 것으로 역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해설]

- ① ㉡: 그 일은 무척 힘들게 보인다. ⇒ '보여진다'는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형 '보이다'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으로, '보인다'로 고쳐야 한다.
 ③ ㉢: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 '믿겨지지'는 '믿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형 '믿기다'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믿어지지' 또한 '믿기지'로 고쳐 써야 한다.
 ④ ㉣: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 '생각되어진다'는 '생각'에 '-되다'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생각된다'나 '생각한다'로 고쳐야 한다.

14. 정답 ④ [피동 표현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④ '잊혀지다'는 피동사 어간 '잊히-'에 통사적인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이는 이중 피동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밝혀지다'는 사동사 어간 '밝히-'에 통사적인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② '숙여지다'는 사동사 어간 '숙이-'에 통사적인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③ '돌려지다'는 사동사 어간 '돌리-'에 통사적인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또한 '옮겨지다'는 사동사 어간 '옮기-'에 통사적인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15. 정답 ② [외래어 표기법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file'의 [f]는 [ㅎ]나 [ㅍ]와 유사하지만,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한 가지로만 적어야 한다. 즉, '화일'이나 '파일' 중 하나로만 적어야 한다. 참고로 '파일'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해설]

- ① [θ]는 국어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1항에 따라 현용 국어 자모로 바꾸어 써야 한다.
 ③ 받침소리 [t]는 [ㄷ]처럼 소리가 나지만, 제3항에 따라 'ㄷ'을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글자로 바꾸어 써야 한다. 참고로 'ㅅ'으로 쓰는 것이 옳다.
 ④ 파열음 [b]는 된소리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4항에 따라 예사소리로 표기해야 한다.

16. 정답 ②

[정답해설]

- ②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글자만 허용한다. ⇒ 'cat, gap, handbook'의 외래어 표기법을 보면 't, p, k'를 받침에서 'ㅌ, ㅍ, ㅋ'으로 적으면 안 되고 'ㅅ, ㅂ, ㄱ'으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 중 하나인 받침의 제한, 즉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글자만 허용한다는 사항과 관련이 있다.

[오답해설]

- ① 원어의 음절 수는 외래어 표기법에도 그대로 반영한다. ⇒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원어의 음절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어에서 1음절인

‘type’도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2음절인 ‘타입’으로 적는다.

- ③ 된소리 글자는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된소리의 표기 여부는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는다.
- ④ 우리말에 없는 소리는 외래어 표기법에서 무시하고 적지 않는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우리말에 있는 소리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 없는 소리의 경우 다른 소리로 바꾸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 무시하고 적지 않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17. 정답 ③ [로마자 표기법의 적용]

[정답해설]

‘양념 계장’의 로마자 표기는 ‘yangnyeom gejang’가 옳다. ‘계장’에서 ‘ㄱ’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쓰인 것이 아니므로, ‘g’로 써야 한다.

[오답해설]

- ① ‘된장’은 ‘doenjang’로, ‘라면’은 ‘ramyeon’으로 쓸 수 있다. 특히 ‘라’의 ‘ㄹ’은 모음 앞에 쓰이고 있으므로 ‘r’로 써야 한다.
- ② ‘제육’은 ‘jeyuk’로, ‘볶음’은 ‘bokkeum’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육’의 ‘ㄱ’은 자음 ‘ㅂ’ 앞과 어말에서 쓰이고 있으므로 ‘k’로 써야 한다.
- ④ ‘산채’는 ‘sanchae’로, ‘비빔밥’은 ‘bibimbap’로 쓸 수 있다. 특히 ‘밥’의 종성 ‘ㅂ’은 ‘p’로 써야 한다.

18. 정답 ③

[정답해설]

- ③ 자음 동화나 구개음화는 적용이 된 형태대로 표기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원칙 중 하나는 자음 동화나 구개음화와 같은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단어의 경우 음운 현상이 적용된 대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글 표기와 로마자 표기가 서로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제시된 로마자 표기법 오류 자료를 보면 모두 이러한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나타낸 ③이 정답이다.

[오답해설]

- ①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로마자로 표기한다. ⇒ 제시된 자료에는 이중 모음이 들어 있지 않으며, 드러난 오류와도 무관하다.
- ②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구분해서 표기한다. ⇒ 제시된 자료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과는 전혀 무관하며 드러난 오류와도 관련이 없다.
- ④ 한자어의 로마자는 각 한자의 원음을 밝혀서 표기한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한자의 경우 음운 현상이 적용된 대로 적지 않고 원음을 그대로 적어서 오류를 범했으며, 또한 ‘해돋이, 달님’ 등은 한자의 원음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9. 정답 ① [중의적 해석의 이유 추론]

[정답해설]

‘ㄱ’은 허리에 충을 차는 동작의 ‘진행’이나 ‘완료’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중의적 문장이다. 즉, 동작을 하고 있는 경우(진행)와 동작을 이미 끝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완료)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허리에 충을 차는 동작의 ‘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답해설]

- ② ‘ㄴ’은 그가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의미로도,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 문장이다.
- ③ ‘ㄷ’은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영화를 좋아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문장이다.
- ④ ‘ㄹ’은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학생들이 ‘다’ 오지 않은 것인지, 학생들이 다 ‘오지’ 않은 것인지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장이다.

20. 정답 ③

[정답해설]

- ③ 학생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다. 따라서 ‘학생은 모름

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해설]

- ① 나는 요즘 시험 보느라 여간 힘들다.
⇒ ‘여간’은 ‘~지 않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
- ②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이겨 내야 한다.
⇒ ‘결코’는 ‘~수 없다/~아니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
- ④ 설령 이번 일은 실패했지만 실망은 하지 마라.
⇒ ‘설령’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더라도/~그러라도’와 호응한다.